

▶ 한국 최초의사 배출 90주년 기념강연회

세브란스의학교 1회 졸업생의 활동

박형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1885년 4월 10일 개원한 제중원에서 의학교육이 시작된 것은 1886년 3월 29일이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학교육이었다. 이 당시의 교육은 현재 행해지는 것과는 사뭇 다른 도제식(혹은 임상형)이었으며,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교육연한이나 상세한 규정이 없는 상태였기에 언제 어떻게 졸업시키느냐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에게 문제였을 것이다. 어쨌건 이러한 의학교육의 씨앗은 여러 시련 끝에 1908년 6월 3일 세브란스의학교에서 7명의 1회 졸업생을 배출시킴으로써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들 이전에도 제중원의학교에서 몇 년의 학습을 받은 학생들이 실제 의업에 종사한 경우도 있고,¹⁾ 1899년 문을 연 관립의학교에서도 다수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세브란스의학교 1회 졸업생들이 우리나라 의학사에 우뚝 서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한 기간 동안 이론 및 실제 경험을 쌓아 당시 미국이나 캐나다의 의과대학 졸업생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는 실력을 쌓은 상태에서 졸업하였고, 이들이 조선정부로부터 의사 면허 1-7번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서양 의료선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서양의학을 비로소 우리의 힘으로 발전시킬 바로 그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졸업 후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들 서양의학의 선각자들이 의학계, 아니 우리나라를 위해 끼친 공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908년에 졸업한 7명의 졸업생은 가나다 순서로 김필순, 김희영, 박서양, 신창희, 주현칙, 홍석후, 홍중은이다. 이들의 가족 환경, 활동을 분석해 보면 다음의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들 대부분은 직접 간접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과 접촉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장연(長淵)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장연은 언더우드가 활동하던 곳으로 김필순이 이곳 출신이고, 나중에 편입한 홍중은도 장연 사람이다. 특히 김필순은 나중에 여러 사람의 세브란스 출신 의사들과 친척 관계를 갖는다. 박서양은 부친 박성춘을 통해 예비순에게 의학교육을 받았고, 주현칙은 선친 미동병원에서 일을 하다 세브란스에 입학하였다. 또한 홍석후는 부친이 언더우드에게 한글을 가르쳤다고 전한다.

둘째, 졸업 후 이들은 국권을 일본에 빼앗기자 홀연히 나서 독립운동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 7명 중 김필순과 주현칙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고, 신창희와 박서양은 몽고와 만주에서 활동하였다.

1) Annual Report of Imperial Korean Hospital. Seoul, Korea, Sept, 1901.

셋째, 이들은 후진 양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했다. 이것은 졸업식 전날 에비슨이 졸업생들과 그들 장래를 논의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데, 『구한말비록』에 잘 기록되어 있다.²⁾

이 중대한 행사가 열리기 전날 나는 이들 7명의 젊은이들을 불러 내일 일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데 필요했던 수년간의 공부와 어려운 일을 끝내고나니 어떤 생각이 드는가 듣고 싶다고 했다. ……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문제를 함께 얘기해 왔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록 공부에 큰 관심이 있었지만 장기간 아주 고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으며 내가 일에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가끔 모든 것을 팽개쳐 버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직 어리고, 의학도가 되기 전에 조선의 관습에 따라 모두 결혼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자가 있지만 우리가 공부할 동안 그들을 부양하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제 개업하여 생을 꾸려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낍니다’고 했다. 바로 내가 예상했던 그런 대답이었다. …… 그때 또 한사람이 개업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준비를 갖춘 사람들을 키워내려는 희망에서 그들을 교육하는데 선생들이 여러 해 동안 기울인 노력을 생각할 때 여기 남아서 다음 학년을 가르치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때 나는 7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동안 7명의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감개무량했다.

7명의 졸업생 중 주현칙을 제외한 6명은 의학교에 남아 후배 교육은 물론 간호원양성소에서 강의도 담당하였다. 이들 중 김희영과 신창희는 1년간 간호원양성소 교수로 있다가 개업하였다. 홍중은은 졸업 후 2년간 후진 양성에 힘쓰다 요절하였다. 김필순은 병원과 학교의 요직을 맡았으나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박서양은 외과 교수로 활동하였으나 1918년 학교를 사임하고 만주에서 활동하였다. 홍석후는 1회 졸업생 중 가장 오래 학교에 남아 동창회를 조직하고 학감 등을 역임하였다.

넷째, 이들은 서양의학의 토착화에도 힘을 써 많은 의학교과서를 번역하였다. 김필순은 에비슨을 도와 학생 시절부터 해부학, 해부생리학, 화학, 내과학, 외과 총론 등 많은 의학교과서를 번역하였으며, 홍중은도 산과책을 번역하였다. 이들의 도움으로 에비슨은 거의 전과목에 걸쳐 우리말로 된 교과서를 구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선구자적 노력은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면서 빛을 잃고 말았다.

김필순(金弼淳)

김필순은 광산(光山) 김씨이며, 1878년 6월 25일³⁾ 황해도 장연군(長淵郡)에서 김성섭(金聖瞻)과 둘째 부인 안성은(安聖恩) 사이의 장남(長男)으로 태어났다. 김필순은 우리나라 최초 의사 7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으며, 독립운동을 하다 비록 일찍 사망했지만 그가 진정한 세브란스인의 표상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의 집안은 일찍이 개화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집안에 속하며, 서상륜(徐相崙)·서경조(徐景祚) 형제가 장연에 우리나라 최초의 소래교회를 세울 때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그의 집안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다음의 표와

2) Oliver R. Avison, 에비슨 기념사업회 역, 『구한말비록』(상). 대구대학교 출판부, 1986, 207-208쪽.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적부.

같이 다수의 초창기 세브란스 출신 의사들과 인척관계를 이루어 초창기 우리나라 의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첫째 여동생 김구례(金求禮)는 같은 장연 출신인 서병호(徐丙浩)와 결혼하였다. 서병호는 서경조의 둘째 아들로서,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발히 활동한 독립운동가였다. 그의 형인 서광호(徐光昊)는 세브란스의학교 2회 졸업생이다. 둘째 여동생 김순애(金順愛)는 독립운동가 김규식(金奎植)과 결혼하였다. 원래 김규식은 김순애와 혼담이 오간 적도 있었으나, 김순애의 학교 동기생 조은수를 부인으로 얻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이 건강이 악화되어 아들 하나를 남기고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학교 동기생인 김순애와 결혼할 것을 부탁하고 주위에서 강권함에 따라 김순애와 재혼하게 된 것이었다.⁴⁾ 김규식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그의 아들 진동과 사촌 누이동생 은식을 대동하고 몽고의 고린(庫倫)을 여행했을 때 만난 세브란스의학교 2회 졸업생 이태준(李泰俊)⁵⁾은 그의 사촌 누이동생 은식과 결혼하였다. 김필순의 셋째 여동생 김필례(金弼禮)는 한국 YWCA의 창설자로서 세브란스 6회 졸업생 최영욱(崔泳旭)과 결혼하였다. 김성섭 첫째 부인의 장남인 김윤방(金允邦)의 둘째딸 김미염(金美艷, 즉 김필순의 조카)은 세브란스 6회 졸업생 방합신(方合信)과 결혼하였다. 김미염의 바로 아랫 동생은 그 유명한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이다. 김윤방의 둘째 동생이며, 김필순의 형인 김윤오(金允伍)는 세브란스 3회 졸업생 고명우(高明宇)를 사위로 맞이하였다.

김필순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는 그의 동생 김필례의 전기⁶⁾ 및 그의 아들 김염의 전기⁷⁾에 비교적 잘 기술되어 있다. 김필순은 한학을 수료하였으며, 일찍부터 언더우드 등 선교사들과 자유롭게 접촉할 기회를 가졌고 1894년 언더우드로부터 세례를 받았다.⁸⁾ 1895년 어느 날 언더우드는 김필순 부모에게 ‘집에 불들어 놓고 책임지고 공부시키겠다’고 요청하여, 김필순은 서울에서 신식교육을 받게 되었다. 김필순은 언더우드 집에 머물면서 배재학당에 입학했고, 남달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특히 영어발음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후에 에비슨의 통역을 할 수 있었고 의학교과서를 번역했으며 에비슨의 의학 강의 시간에 자주 통역하게 된 것이다.⁹⁾

4년간 배재에서 학업을 마친 김필순은 1899년 제중원(濟衆院)에서 처음에는 새록스(Sharrocks AM)의 통역 및 조수로서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1900년에는 에비슨의 통역(通譯)·조수(助手)로 활동하였다.¹⁰⁾ 그는 에비슨을 도와 그레이 해부학 교과서를 번역하였으나, 불행히도 원고가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러나 1906년 해부학교과서를 다시 번역하는 것을 필두로 외과총론, 화학, 해부생리학, 내과학 등 많은 책을 번역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졸업 전에 저학년 학생들의 강의도 담당하였다.

그러나 그의 학창시절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하루는 서울로 가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던 필순이 행실이 좋지 않은 어떤 여자와 사귀느라 공부는 팽개쳐두고 있다는 소식이 소래마을로 전해졌다. 김필순의 어머니는 매일 밤 돛자리와 빗자루를 들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 기도를 올렸다.¹¹⁾ 어느날 어머니는 기도 중 ‘네 아들을 내가 구원했으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하

4) 이정식, 『김규식의 생애』, 신구문화사, 1974.

5) 이태준에 관해서는 『세브란스교우회보』 등에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의 활동은 이 책에 실린 반병률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6) 이기서, 『교육의 길 신앙의 길 김필례 그 사랑과 실천』, 태광문화사, 1988.

7) 스텔라 쓰네카스, 이상 옮김, 『상해의 조선인 영화황제 김염』, 실천문화사, 1996.

8) Kim Kyu Sik: Dr. Kim Pil Soon, 『The Korea Mission Field』 7: 14-16, 1911.

9) 이기서, 앞의 책, 32-33쪽.; Oliver R. Avison, 앞의 책(하), 52-53쪽.

10) Kim Kyu Sik, 앞의 글, 14-16쪽.

11) A christian Korean celebration, 『The Korea Mission Field』 5: 206-208, 1909.

는 소리를 들었다. 그 뒤에 안일이지만 참으로 공교롭게도 그 무렵부터 김필순이 마음을 고쳐 먹고 학업에 열중하였다.¹²⁾

김필순은 의학도로서 병실 및 외래에서 보조 역할을 했고 많은 책을 번역하였을 뿐 아니라, 수년 동안 병원 경영에 관해서도 상세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¹³⁾ 당시 예비슨이 그의 능력을 인정해 장차 세브란스 병원의 책임을 맡고 한국의 의학을 이끌어야 할 재목으로 키우려 했던 것은, 세브란스병원을 건축하고 있을 당시 상황을 적은 『구한말비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⁴⁾

교재의 한글번역을 도운 의과 대학생 가운데 미스터 김이 ‘고오든’씨의 통역인으로 수고했고, 모든 일이 별다른 어려움없이 진척되었다. 드디어 난방과 배관 공사를 해야 할 순서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 ‘고오든’씨와 미스터 김과 나 이렇게 셋이서 해야만 했다. 나는 경영해 오던 병원에서 여러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끝나는대로 공사장에 달려가서 두 사람과 같이 일을 했다.

한편 김필레의 전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¹⁵⁾

1901년 김필레는 오빠 김필순의 지시에 따라 서울로 올라왔다. 필순은 제증원에 있으면서 의학서적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환자 진찰시 통역을 맡았다. 그러다가 자신도 의술을 조금씩 배워 진찰할 수 있게 되었다. 제증원은 차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몰리어 환자도 늘어나니 입원환자들의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화급한 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필순은 소래마을로 연락하여 가족들이 서울로 올라오도록 했던 것이다. 인순, 순애, 필순의 아내, 어머니, 필레 등 다섯이었다.

김필순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는 을사보호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국운이 기울어 갈 때였다. 그는 착실한 기독교인으로 항상 정의감에 불타 있었으나, 그가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된 것은 1907년 8월에 일어난 조선군의 강제 해산과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때의 상황을 김필레 전기에는 이렇게 적고 있다.¹⁶⁾

1907년 구한국 군대의 해산은 민족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하였다. 보병 대대 장병들이 시가전을 벌이던 날 김필레는 둘째 오빠 윤오 집에 있었다. 김필레는 필순의 집에 있는 어머니 안씨가 걱정이 되어 필순의 집으로 찾아가는 길에 길 위에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알고 보니 온통 핏물이었다. 김필레가 세브란스 병원 안에 있는 필순의 집에 다다랐을 때 세브란스 병원도 아수라장으로 변한 뒤였다. 세브란스 병원 안은 부상자와 시체들로 가득했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소달구지에 적십자기를 달고 연신 환자들을 날라오고 있었다. 김필순은 그날 하루 종일 정신없었다. 밀려드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눈코 뜰새 없었다. 가족들도 그날은 늦게서야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그는 점심먹고 있는 가족들에게 달려와, ‘어머니 일손이 달려요. 부상병 간호와 치료하는 일 좀 도와주세요’ ‘시집도 안간 양가집 규수가 아무리 부상병이라고는 하나 남정네들 간호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어머니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걸 시시콜콜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필순은 마음이 다급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야속하기도 했다. 김필순이 그리스도의 참사랑 실천까지 들먹이자 그제서야 어머니는 마지 못하는 체하며 집안 처녀들이 부상병을 간호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리하여 함

12) 이기서, 앞의 책, 36-37쪽.

13) Kim Kyu Sik, 앞의 글, 14-16쪽.

14) Oliver R. Avison, 앞의 책(하), 126쪽.

15) 이기서, 앞의 책, 42-43쪽.

16) 이기서, 앞의 책, 56-59쪽.

라, 미염, 마리아와 김필레, 김필순 이 다섯은 다친 군인들을 밤낮 가리지 않고 정성껏 돌보았다. 김필레는 열흘동안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부상병 간호를 했다. 밤에는 특히 부상병들의 신음소리로 아비규환이었다. 김필순의 조카인 김마리아가 뒷날 항일애국운동, 독립운동의 횃불을 높이 들어올릴 수 있게 된 것도 아마 이 세브란스 체험에 크게 힘입었음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김필순은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이동휘, 김구 등이 1907년 9월 조직한 비밀정치결사 신민회(新民會)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그의 집에서 회의를 연 일도 있었다. 신민회에서는 본국을 떠나 중국령의 압록강 상류 북안 通化에 독립군 기지를 세운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1908년 6월 제중원의학교를 졸업한 김필순은 독립운동을 위해 1912년초 조국을 떠날 때까지 에비슨 교장의 전폭적인 후원에 힘입어 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다. 이미 졸업 전부터 후배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고, 병원 경영에 관해서도 에비슨으로부터 특별히 사사받은 그에게 많은 역할이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처음에 한국에는 한글로 된 의학서적이 없었다. 김필순은 영어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한문만 약간 알았을 뿐이다. 따라서 그는 선생과 옆에 앉아 공부해야 했으나, 다른 임무, 환자 혹은 외국 방문객에 의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과서 번역은 한 단원 한 단원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용어를 고안해내야 했다. 번역이 끝나면 조금씩 등사해 다른 학생들에게 배포되었다. 해부학 번역이 모두 끝났을 때 이것은 등사하기 전에 불에 타 없어졌다. 김필순은 의사가 되기 위해 거의 15년간 노력했으며, 이동안 drug clerk, 간호부 혹은 외래 및 병원 보조원으로서 일했다. 상심되는 경우도 많았고 목표에 절대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졸업 후 그의 활동은 당시 선교부에서 월간으로 발행되던 『The Korea Mission Field』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1911년 1월호에는 그의 사진을 표지사진으로 넣고 후에 그의 매체가 된 김규식이 쓴 글이 실려있다. 김필순은 병원일로서는 졸업 직후 병동(病棟)과 외과(外科)의 부의사(assistant physician)로 임명되었고, 1911년에는 병원 외래 책임자가 되었다. 아울러 졸업 직후 의학교의 교수로 임명되었고 1910년에는 의학교의 Manager(혹은 Director)로 임명되었다.¹⁷⁾ 1910-11년 기록에 의하면 그는 하루 3-4시간 강의를 하면서 해부학과 생물학을 담당하였고, 생리학은 Pieters 부인과, 위생학과 외과학은 에비슨 교장과 분담하여 강의하였다. 한편 간호원양성소의 교수로도 활동했는데, 1908-1909년에는 간호원양성소에서 그가 번역한 해부생리학 교과서로 강의하였다.¹⁸⁾ 1911년의 제2회 졸업식에서는 부의장(associate chairman)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렇게 바쁜 중에도 그는 많은 의학교과서를 번역했는데, 현재 해부학, 화학 및 외과 총론 교과서가 남아 있다.¹⁹⁾ 이 책들은 세브란스의학교 이외에도 국내의 많은 선교 병원에 무료로 배포되어 교과서로 이용되었다.²⁰⁾

17) Kim Kyu Sik, 앞의 글, 14-16쪽.

18) Shields ES: Nurses Training School, 『The Korea Mission Field』 5: 84, 1909. 김필순은 D. Kimber이 지은 『Anatomy and Physiology for Nurses』를 번역한 교과서로 강의하였다.

19) 김필순 번역(어비슨 교열): 『해부학』, 대한 황성 제중원 출판, 1909.(한편 기창덕 대한의사학회 회장은 1906년판을 소장하고 있어, 이 책이 여러 번에 걸쳐 인쇄되었고 많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필순 번역(어비슨 교열): 『신편 화학교과서 유기편』, 대한 황성 제중원 출판, 1909.

김필순 역술: 『외과 총론』, 世富蘭德病院 출판, 1910년 10월.

20) From Dr. O.R. Avison, Seoul. 『The Korea Mission Field』 3(4): 56, 1907.

그러나 신민회에 가입하여 비밀리에 독립 운동에 적극 참여하던 김필순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큰 시련이 닥치고 말았으니, 이것이 소위 105인 사건이었다. 1911년 9월 총독부는 신민회 중심 멤버를 포함한 항일지식인 7백여명을 검거 구속하여 105인에게 실형을 언도하였던 것이다. 신민회에 대한 일제 검거를 사전에 안 김필순은 세브란스 병원에 한 통의 편지를 남겨두고 모습을 감추었다. ‘신의주에 난산을 겪고 있는 임산부가 있어 전보로 내게 왕진을 요청하는 까닭에 외출한다.’ 그날 이후 김필순은 다시는 서울 땅을 밟은 일이 없었다.

이때 김필레는 오빠의 격려에 힘입어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상황을 김필레 전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²¹⁾

김필레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김필순으로부터 보내지고 있던 학비가 중단되었다. 오빠가 소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행방불명된 것이었다. 105인 중에서 핵심 주동 세력이 김필순의 집에서 모의했다하여 일경은 김필순을 잡아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김필순은 하는 수 없이 신의주에 있는 세브란스 분원에 출장간다는 말을 남긴 채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사실 그는 서간도 통화현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했다.

어느날 일본에 있는 김필레에게 뜻하지 않은 손님이 새벽에 기숙사로 찾아와 허리춤 속에 감추어 온 하얀 종이를 낀 새끼를 꺼내어 김필레에게 건네 주었다. 새끼를 풀어보니 그것은 종이 조각마다 순서를 적어 넣은 편지였다. 편지의 내용은 대충 이러했다.

‘필레 동생 보아라. 내가 긴 말을 자세히 적어 보내지 못함이 서운하나 지금 형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 나는 국내의 일로 일경에 쫓기는 몸이 되어 이곳 서간도로 왔다. 이곳에서 난 내 인생을 개척할 생각이다. 난 이곳에서 지금까지 꿈꾸어 오던 이상촌을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하여 우리나라 독립의 기틀을 닦고자 한다. 필레야. 넌 이곳으로 와 그 동안 배운 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맡아주어야겠다. 편지 전해준 분을 따라 귀국하기 바란다. 귀국 즉시 가족들을 데리고 서둘러 서간도로 오기 바란다. 이만 총총.’

귀국한 필레는 어머니의 강한 뜻을 꺾지 못하고, 언니 김순애와 필순의 가족들 짐을 챙겨 주고 서간도로 들어가는 가족들 전송만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수밖에 없었다.

필레의 언니 김순애가 필순의 어머니, 아내, 네 명 아들을 데리고 간 통화에는 신민회의 이회영 등이 건설하고 있던 조선 독립군 기지와 조선인촌이 있었다. 김필순은 이곳에서 병원을 열고, 모든 수입을 조선독립군의 군자금으로 기부하였다. 그러나 통화가 점차 일제의 영향권에 들며 압박이 심해지자 1916년 몽골 근처의 치치하얼로 도피하였다. 이곳에서 김필순은 병원을 개설하고, 땅을 구입하여 평소 꿈꾸던 조선인을 위한 이상촌 건설을 시작하였다.

이 당시의 상황을 조선족 학자 현용순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²²⁾

김필순은 토지 구입을 위해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땅을 구입한 것은 통화에서 멀리 떨어진 몽골 인근의 치치하얼에 이상촌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필순은 의원을 열고 어머니와 아내가 빈농을 지도하고 원조했다. 또한 신혼이었던 김필레, 최영욱 부부도 와 최영욱은 의원에서 일하고 김필레는 농민교육에 종사했다. 김필순의 목적은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조선 청년을 이 이상촌에 모아 독립군 양성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한편 오빠를 도와 치치하얼에서 잠시 신혼 생활을 한 김필레의 전기에는 치치하얼의 생활이

21) 이기서, 앞의 책, 77-79쪽.

22) 스즈키 쓰네키스, 앞의 책, 94-97쪽.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²³⁾

김필레가 최영욱과 결혼할 무렵 김필순은 치치하얼에서 130여 리가 넘는 땅을 사서 이상촌 건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러시아제 농기구를 구입하고 동포 빈농 30가구를 받아들였다. 김필순은 병원일에 바빴음으로 형 김윤오를 불러다가 감독일을 맡겼다. 선생의 어머니 안씨도 이곳으로 와 일을 함께 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흙 벽돌을 직접 찍기도 했다. 필순은 이곳에 다 이상촌을 세우고 중국 일대에 흩어져 있던 애국 청년들을 이곳으로 규합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했다. 김필레가 최영욱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리자 김필순은 김필레 부부에게 치치하얼로 들어와 같이 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최영욱은 처남의 제의에 선뜻 응하고 치치하얼로 이사하였다. 최영욱은 병원 일을 주로 도왔다. 그러나 김필레가 임신을 하게 됨에 따라 그들 부부는 전라도 광주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김필순은 애석하게도 일제의 특무요원으로 생각되는 이웃 일본인 의사가 전해준 우유를 먹은 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1919년 음력 윤7월 7일 영면(永眠)하였다. 이때의 정황을 막내딸 김로는 생전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씀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²⁴⁾

통화에서 의원을 연 아버님은 수입의 전부를 조선독립군에 바쳤다. 우리는 치치하얼 북관악 가호동 3호에 살았다. 아버님이 통화에서 도망해 온 다음 조선독립군은 전부 파괴되고 독립군 전대원이 감옥에 들어갔다. 1919년 어느 날 아버지는 의원의 간호부로부터 한 봉지의 우유를 받았다. 간호부가 말하기를 동료인 일본인 내과의사가 ‘김선생은 위급한 환자 치료로 피로한데다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으니 이것을 마시도록 주시오’하고 말하여 그녀에게 넘겨 주었다. 그렇지만 김필순은 우유를 마신 직후 기분이 나빠져 그 간호부의 부축을 받아 집에 돌아왔는데 설사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날에는 말하는 것도 불가능해졌기에 간호부는 일본인 내과의사에게 왕진을 부탁했다. 일본인 의사는 암염으로 만든 알약을 뜨겁게 해서 김필순에게 먹였는데, 김필순은 배가 시커멓게 변하고 결국은 사망하였다. 조선인 간호부는 대성통곡하며 울었다. 김필순 사망후 일본인 의사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는 틀림없는 일본의 특무 요원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통화의 동지가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김필순을 방문할 무렵 그 일본인 의사는 김필순 의원에 모습을 나타냈고 사망과 함께 모습을 감추었기 때문이다.

당시 상해에서 발생되던 신문인 『독립』에 그의 사망 기사가 실려 있다.²⁵⁾

의학박사 김필순씨는 흑룡강성에 재하여 아족의 장래를 위해 개척에 노력하다가 음력 윤7월 7일에 불행히 영면하고……

1919년 김필순이 세상을 뜨자 9식구의 대가족은 갑자기 생활난에 부딪쳤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열었던 진료소의 간호부, 조산부로, 둘째는 진료소의 견습의사로 일했다.”²⁶⁾ 게다가 일본 영사관에서는 일본군을 파견해 집안을 수색했는데 다행히 김필순이 께짝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비밀 서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비밀 서류란 20여명의 혁명지사들이 서명한 ‘조선독립운동서약서’였다.

23) 이기서, 앞의 책, 94~97쪽.

24) 스즈키 쓰네카스, 앞의 책, 83~84쪽.

25) 『독립』 1919년 10월 7일.

26) 스즈키 쓰네카스, 앞의 책.

한편 김필순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최영욱은 치치하얼로 가서 필순의 가족들을 광주로 데려오자고 했지만, 김필레는 장남 덕봉이의 교육만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의 교육만을 맡았다. 김필레는 덕봉이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를 만들어 볼 심산으로 세브란스의전에 입학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세브란스의전 입학은 뜻하지 않은 장애가 가로막고 있었다. 김필순이 세브란스 재직시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불온사상자의 자녀로 분류되어 입학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설령 입학허가가 나더라도 덕봉이가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일본어로 하는 강의를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필레는 하는 수 없이 산동시대에 입학시켰다가 나중에 봉천시대에 편입시켜 졸업할 수 있게 해 주었다.²⁷⁾ 의과대학을 졸업한 김덕봉(김영)은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당직의로 근무하였고, 나중에 산부인과 수련을 받았다.²⁸⁾ 수련을 끝낸 후 김덕봉은 간도 용정의 제창병원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셋째 아들인 김염은 1930년대 중국 영화계에서 활동하여 ‘상해(上海)의 영화황제(映畫皇帝)’라는 호칭을 얻었으며, 그에 대한 전기가 있고,²⁹⁾ 1996년 4월 28일에는 KBS의 일요일스페셜에서 「상해의 영화황제 김염」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김필순은 1997년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김희영(金熙潑)

김희영은 광양(光陽) 김씨로서 1879년 12월 7일 태어났다. 학적부에 의하면 그는 원적이 경기도 경성부이었고, 사립 배재(培材)학당을 졸업하였다.³⁰⁾ 세브란스의학교를 졸업한 후 김희영의 활동에 대해서는 1년간 간호원양성소에서 ‘Materia Medica’를 강의했다는 기록이 있으며,³¹⁾ 그가 사망하던 1920년 『기독신보』에는 비교적 상세한 약력이 소개되어 있다.³²⁾

金熙潑醫師의 略歷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 김희영씨는 불행히 1920년 11월 7일 오후 3시경 남대문밖 세브란스병원내에서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다. 김희영은 학교를 졸업한 후 평안북도 용천군 양시(楊市)에서 2-3년간 개업하여 여러 어려운 병자도 많이 회생시켰다. 따라서 여러 인사들이 김희영이라 하면 묻지말고 대선생이라 칭하든 터에 씨가 다른 곳으로 갈까하여 매우 의심하던 유지들도 적지 않았더라. 그런 고로 그곳에 있을 동안 여러 동지도 많이 있었으며, 씨에 관한 일이라면 발벗고 대들었더라. 그리하나 씨의 생각이 한 곳에만 머물러있는 것은 사람의 이목이 고루하여 못쓰겠다하는 뜻으로 6년전 강원도 춘천 예수병원장으로 피임되어 몇 개월간 지내다가 매년 회에서 씨를 함경남도 원산부 구세병원으로 파송시키었더라. 파송을 받아 병원에서 시무할 때에 환자에 대한 친절함과 또는 위태한 환자가 있으면 시간을 머무르지 아니하고 약을 주며 외과 환자들은 만일 씨가 수술에 착수치 아니하면 낙심을 하는고로 다른 의사는 감히 수술을 하려할지라도 못하게 되더라. 어찌하여 그리 기능이 있느냐. 씨는 일찍이 세브란스를 졸업한 후로 덕국(德國)의사(德國醫師)로부터 외과를 전문한 연구임이라. 개복술(開腹術)로 말하면 30분동안이면 넉넉히 끝내고 손을 떼는지라. 그런고로 함경남

27) 이기서, 앞의 책, 106-107쪽.

28) 소식란, 『세브란스교우회보』 제12호, 1929, 71쪽 ; 소식란, 『세브란스교우회보』 제14호, 1931, 25쪽.

29) 스텔라 쓰네카스, 앞의 책.

3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적부.

31) Shields ES: Nurses Training School, 『The Korea Mission Field』 5: 84, 1909.

32) 『기독신보』 1920. 11. 17. 이 기사에는 사망일이 7월 7일과 8일로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도 원산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부르기를 김 박사라 칭하더라. 작년에 구세병원 의사의 직임을 사하고 즉시 충청남도 직산(直山) 금광병원장으로 피선되어 오늘까지 그 임을 떼고 있던 바, 폐결핵 병으로 여러달 동안 고생중에 있어 금년 여름에는 강원도 금강산에서 정양중 조금 차도가 있어 몇 달전에 직산으로 돌아 오게 되었다. 그리함으로써 매우 안심하더니 미구에 이 병이 다시 점점 더 하여 필경은 일전부터 직산으로부터 상경하여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었는지라 씨가 입원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기자는 나아가 본 즉 죽기 전에 한번 다시 만나보니 고마웁다하더라. 그리한데 이틀 후에 사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기자는 우중에 비도 헤아리지 아니하고 나아갔더니 치료실에는 죽은 시체만 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리하여 이것이 웬일이나 한즉 병원에서 일보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된 일인지 김의사가 어제 오후 사망한 후로 그 00은 나가드니 오늘 오후 3시가 되도록 오지 아니하고 그외에도 다른 일가나 친척이나 척분되는 사람이든지 아무튼지 오지 아니하여 심히 민망하고 맹랑한 일이라하더라. 한심하도다 이 세상의 일이어 남의 일이라도 우리가 당한 것 같도다. 송언용(宋彦用)씨에게 기자가 묻기를 시체있는데 이틀동안이나 비워두고 아무도 오지를 아니하니 이러한 일도 있느냐 한즉 글썸…….

金熙溱氏 永眠

의사 김희영씨는 숙환으로 여러달 신음하던 중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치료하더니 지난 8일(월요일) 오후 3시에 서거하여 9일 상오 9시에 제중원에배당에서 영결식을 거행하고 고양군 연희면 세교리(高陽郡 延禧面 細橋里)에 안장하였다.

한편 『The Korea Mission Field』에는 김희영이 직산에서 미국 감독 및 한국인 광부들을 치료하며, 교회에서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³³⁾

박서양(朴瑞陽)

박서양은 1885년 9월 30일 최하층으로 취급받던 백정(白丁) 박성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³⁴⁾ 박성춘은, 1893년 서울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에비슨의 성실한 치료에 감명을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와 에비슨의 만남은 백정과 양반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백정이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접받아 상투를 하고 갓을 쓸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에비슨은 1895년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 방역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이에 정부는 내부대신 유길준을 통해 에비슨에게 사의를 표했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비슨은 당시 유길준에게 백정이 일반 조선 남자의 상징인 상투를 하고 갓을 쓰는 영예로운 관습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에 유길준은, 제의를 고맙게 생각하며 곧 새로운 법을 선포하는 포고문을 붙이겠다는 회신을 보냈다. 그후 오래지 않아 에비슨이 옷을 잘 차려입은 백정 박씨를 보았음은 물론이다.

『구한말비록』에는 당시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³⁵⁾

선교사 Samuel F. Moore는 여러 조선인들을 일요일마다 교회에 모이게 했는데 박성춘도 이 모임에 들어 갔다. 물론 이들은 갓도 쓰지 않은 사람이 끼어드는 것을 보고 눈을 흘겼으며, 백정의 친구들

33) What are the graduates of the Severance Medical College doing? 『The Korea Mission Field』 18: 159-160, 1922.

3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적부.

35) Oliver R. Avison, 앞의 책(상), 193-196쪽.

이 집회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여 이 모임이 흔히 백정교회라 불리게 되자 몹시 당황하게 되었다. 무어는 양반들과 협의하고 교인인 백정을 교회밖으로 몰아낼 수 없다고 했으며, 결국 양반들이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하여 교회가 번성하게 되었다.

박성춘은 후에 은행가가 되었으며, 개종한지 21년이 지나서야 당시 가장 큰 교회³⁶⁾의 장로가 되었다. 박성춘의 다른 아들 박대양도 세브란스를 1931년도에 졸업하였다.³⁷⁾

어느날 에비슨은 박성춘으로부터 박서양의 결혼식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참석하여 축하해주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박성춘은 ‘박사님, 이제 제 아들 놈을 장가보냈으니 병원으로 데려가서서 사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여 에비슨을 놀라게 하였다. 사실 이때까지 박서양은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는 상태였다. 에비슨은 얼마 후 박서양을 병원에 데려 왔고, 그의 사람됨을 알아보기 위해 처음에는 병원 바닥 청소와 침대정리 및 자질이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시켰다.³⁸⁾ 박서양이 힘든 모든 일을 아무 불평없이 거뜰히 처리하자 에비슨은 그에게 글공부를 시작하게 하고 1900년 8월 30일 정규 과정으로 입학시켰다.³⁹⁾

박서양은 1908년 6월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의사 중 한명으로 세브란스의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졸업 직후 화학을 맡아 강의를 하다가 다음에 해부학을 가르쳤고, 외과에서 assistant surgeon으로 근무하였다.⁴⁰⁾ 또한 세브란스 간호원양성소의 교수로도 활동하였다. 학교와 후진 양성을 위해 동서 분주한 결과, 1911년에는 흐뭇한 마음으로 제2회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⁴¹⁾ 확실하지 않지만 그는 1918년까지 학교에 근무하다가 사임하고⁴²⁾ 만주 용정의 국자가에 구세의원을 개업하였다. 동시에 그는 교회를 설립하여 이끌었고, 얼마 후에 장로로 피선되었다. 또한 아동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그 곳에 소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봉사하였다.⁴³⁾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던 박서양이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었으며, 어떤 인물이었는가는 『의학백년』에 나오는 다음의 기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⁴⁴⁾

1935년 우리는 은퇴하여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에 용정에 있는 캐나다 선교부에 갔었다. 그 곳에 박서양의 집이 있었는데, 그를 찾아가 보고 싶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방문이 불가능해졌다. 심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날 박씨 부인이 우리가 기거하고 있는 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우리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박의사에 관해 물었다. 그녀는 우리가 그의 집으로 가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둘이 함께 우리를 방문하려고 나오는 순간에 정 반대 방향에 살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왕진을 요구받고 한참 망설이다가 그의 의무를 충실하기 위하여 그 환자집으로 갔다고 대답했다.

36) Oliver R. Avison, 앞의 책(상), 200-202쪽.

3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적부. 한편 『의학백년』(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59-60쪽)에 의하면 박서양의 두 아들이 세브란스에 입학했다고 되어있는데, 학적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아마 입학했다더라도 졸업은 하지 못한 것 같다

38) Oliver R. Avison, 앞의 책(상), 205-206쪽.

3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적부.

40) What are the graduates of the Severance Medical College doing? 『The Korea Mission Field』 18: 159-160, 1922.

41) 『The Korea Mission Field』 7: 210, 1911.

42) What are the graduates of the Severance Medical College doing? 『The Korea Mission Field』 18: 159-160, 1922.

43) 하리영(河鯉泳): 어비신(魚丕信) 박사 소견(27). 조선의료교육의 시작(4). 『기독신보』 제869호. 1932년 7월 27일 5면.

44) 『의학백년』, 59-60쪽.

이 얼마나 참의사의 진면목인가? 그는 비록 김필순이나 주현척처럼 독립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세브란스 정신의 일단을 나타내는 모범적인 전범(典範)으로 영원히 기억될 만하다. 이후 박서양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세브란스 병원 구내의 남대문 교회에 유치원이 설립되어 에비슨 부인이 원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어떤 아이들의 부모가 젊은 여자를 원장에게 데려와 교사로 추천하였다. 원장은 면밀히 검토한 끝에 그녀를 교사로 임명했는데 바로 박서양의 딸이었다. 서울로 올라온 그녀는, 아버지가 첫 학생이었던 의학교와 병원과 함께 발전해 온 교회에서 봉사했던 것이다.⁴⁵⁾

신창희(申昌熙)

신창희는 평산(平山) 신씨로 1877년 5월 21일 태어났다. 학적부에 의하면 원적은 경기도 경성 부이고, 1904년 5월 21일에 입학하였다.⁴⁶⁾ 신창희의 활동에 대해서는, 졸업 후 1년 동안 간호원양성소에서 'Weights and Measures including the Metric System'과 'Bacteriology, with the aid of the Microscope'를 강의한 것⁴⁷⁾을 제외하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국땅에서 조국을 그리며 사망했다는 기사가 1926년 『기독신보』에 실려 있다.⁴⁸⁾

故 申昌熙君을 弔함

아- 신군은 갔다. 1926년 2월 28일 오후 5시에 남다른 포부를 품고 수천리 이역에서 표랑(漂浪)의 생활을 계속하던 신 군은 마침내 그 쓸쓸한 몽고 천지에서 영영 가버리고 말았다. 그는 일찍이 경성 세브란스의학교를 졸업하고 얼마동안 내지에서 의사 일을 보다가 국권의 상실과 민족의 실패를 통분히 여겨 필경은 따뜻한 고국을 떠나 혈혈단신으로 중국 천지를 편답(遍踏)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항상 동포를 사랑하는 정신이 끊이지 않고 어디를 가던지 자기가 배운 기술로 유리하는 동포를 힘써 도와주며 제세의 의술을 널리 베풀어 만리 이역에 고통받는 형제를 많이 구호하여 주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동몽고 지방으로 와서 역시 의술로 신불신자간(信不信者間)에 다대한 유익을 끼쳤으며, 우리 동몽고교회의 직원중 한 사람이 되어 열심으로 교회일을 도와주었다. 아- 신군은 여러해동안 해외에서 慘?의 생활을 겪어온 결과에 불행히 폐렴이라는 병마에 걸리어 인(因)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아깝게도 이역에서 불귀의 객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가고 말았다. 동몽고교회 형제들은 슬퍼함을 이기지 못하던 중 ??를 하면서 동정금 80여원을 모집하여 교회장을 거행하고 유해를 몽고사막에 매장하였으니 참으로 일색(日色)이 빛이 없는 듯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는 듯 비애하기 그지 없었다. 아- 그의 육체는 이미 지하의 흙과 합하였으니 다시 볼 길이 없거니와 그 영혼은 하늘 나라에서 영영 살아 있어 그 뒤를 밟는 우리들을 영접하여 줄 것으로 믿는다. 그가 운명하던 당시에 성찬석(聖餐席)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께로 갔다.

한편 『세브란스 교우회보』에는 신창희가 1926년 2월 26일 '수 십년 동안 의계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동몽고 지방에서 폐렴으로 불귀의 객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⁹⁾

45) Oliver R. Avison, 앞의 책(상), 211-212쪽.

4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적부.

47) Shields ES: Nurses Training School, 『The Korea Mission Field』 5: 84, 1909.

48) 『기독신보』 1926년 3월 31일.

49) 『세브란스교우회보』 7호, 1926, 23쪽.

주현칙(朱賢則)

주현칙은 1883년 7월 7일 출생하였으며, 원적은 평안북도 선천군(宣川郡)이었다.⁵⁰⁾ 주현칙은 1900년 선천 미동병원에서 일하다가 상경하였으며, 1905년 1월 10일 입학하였다.⁵¹⁾ 그는 졸업 직전 김필순 등과 함께 쓰러져 가는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1907년 4월 창립된 신민회에 가입하여 평안북도 지회에서 활동하였다.⁵²⁾ 주현칙은 1908년 졸업 후 학교에 남지 않고 선천에서 인제의원을 개설하였다. 그는 개업을 하면서도 비밀리에 국권 회복을 위해 활동하다가 1911년 9월 소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선천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1912년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1913년 7월 2심 재판에서 무죄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년간 옥고를 치렀을 뿐 아니라 일제에게 잔혹한 고문을 받았다. 국내의 항일 활동이 힘들어지자 주현칙은 1921년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군자금 조달에 진력하였다. 또한 임시정부 평안북도 연통제 참사에 임명되었고, 재무부 참사도 역임하였다. 1921년 당시 그는 상해에 세브란스의전 후배 신현창(1918년 졸업)과 함께 삼일의원을 개업하였다.⁵³⁾ 1921년 11월 25일 하오 7시에 개최된 적십자사 총회에서 신현창, 김규식 등과 함께 상의원으로 피선되었다.⁵⁴⁾ 주현칙은 이 시기에 대한청년 독립단과 상해거류민단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2년 1월 현재 주현칙은 단독으로 삼일병원을 개업하였으며,⁵⁵⁾ 상해국민대표회기성회에 가입하여 안창호, 여운형 등과 함께 임시정부 개편과 국민대표회의의 개최를 주장하였다. 또한 홍사단에 가입하였고 1926년까지 상해에서 활동하였다. 주현칙은 1927년에 귀국하여, 고향 선천에 동제의원(同濟醫院)을 개원하고 사재를 털어 대동고아원을 창설하였는데, 당시 도에서 유일한 고아원이었다. 1928년 3월 21일에는 동창회 총회에 참석하였는데 교우회보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⁵⁶⁾

주현칙씨는 본교 제1회 졸업생 7인 중 생존한 3인의 한 분으로 금년 봄 동창회와 에비슨교장 동상 제막식에 참석하였다. 씨의 성명은 익숙하나 안모를 아는 자가 본교에는 교장, 허스트 교수, 실스 간호부장, 홍석후씨 외에는 전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씨를 영접하여 희색만만한 자가 교장과 홍선생뿐이리요. 더욱 씨의 건강과 건투를 축복한다.

1930년에는 병원을 신축하고 교회와 고아원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분주히 활동하였는데, ‘작년에는 채소원(菜蔬園)을 대대적으로 계획하다가 불행히 약 3,000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과수원은 어떠할지’라고 교우회보는 전하고 있다.⁵⁷⁾ 의견상 주

5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적부. 한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20권, 897쪽)에는 1882년 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5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적부.

52)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일지사, 1990, 27쪽.

53) 『독립신문』 1921년 3월 26일.

54) 『독립신문』 1921년 12월 6일, 한편 이때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6회 졸업생인 김창세는 감사로 피선되었다.

55) 『독립신문』 1922년 1월 1일.

56) 『세브란스교우회보』 10호, 1928년, 58쪽.

57) 『세브란스교우회보』 13호, 1931년, 42쪽.

현칙은 특별한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1936년 동우회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1937년 10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언도받았으며 공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실질적으로 2년 6개월간 옥고를 겪었다. 이어 1942년에는 미국선교사를 통해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 송출한 사실이 탄로되어 검거되었으며, 선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여 졸도하기까지했다. 아깝게도 해방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3월 25일 60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정부에서는 주현칙의 애국운동을 인정하고, 1972년 독립유공자로 건국공로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홍석후(洪錫厚)

홍석후는 남양(南陽) 홍씨이며, 홍준(洪埈)과 김사배(金思培) 사이의 장남으로 1883년 4월 9일에 태어났다.⁵⁸⁾ 학적부에 의하면 원적과 주소가 경기도 경성부 정동(貞洞)으로 되어 있다.⁵⁹⁾

에비슨은 자신의 전기에서 홍석후와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⁶⁰⁾

내가 홍석후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우리가 1893년 서울에 도착하기 직전에 찍은 최초의 장로교 남자학교의 사진을 통해서였다. 그는 여러해 동안 수 명의 선교사들에게 말을 가르친 어느 학식있는 조선인의 아들이었다. 그는 이 학교에서 영어와 미국의 국민학교 상급학년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과목들을 공부했다. 이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홍씨는 조선의 문부성이 설립한 소위 의료원에 입학하여 수료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오직 일본의 의서 강독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병원의 환자들이나 연구실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식이 없었다. 졸업 후 홍석후는 홍중은과 함께 그들이 진료나 질병치료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아무리 장기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마칠 때까지 남아있겠다고 하면서 우리 병원의 보조원이 될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의학용어집을 준비하는 극히 중요한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었다.

홍석후는 배재학당에서 신흥우, 이승만 등과 함께 공부를 한 후 1903년 관립의학교에 입학하여 1906년 장기무, 윤종익, 홍중은 등과 함께 3회로 졸업하였다. 그는 한때 종로에서 자혜의원을 개업하여 성업 중이었으나, 본인이 환자를 보기에겐 경험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깨닫고 에비슨에게 부탁하여 1906년 2월 1일 세브란스의학교에 편입하였다.⁶¹⁾

졸업 후 홍석후는 학교에 남아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택했다. 그는 에비슨의 지도를 받아 이 분야를 담당하였고, 1912년 부임한 안과·이비인후과 전문의인 보우만의 조수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보우만이 부인의 병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자 홍석후는 조수들의 도움을 받아 이 분야를 맡게 되었다.

홍석후의 동생 영후(홍난파)도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하였으나, 중퇴하고 음악가의 길을 걸었다. 홍석후는 키가 크고 건장하였으며 부친에게 효성이 대단하였다. 홍석후는 술을 무척이나 좋

5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적부. 한편 정구충, 『한국 의학의 개척자』, 동방도서주식회사, 1985, 223쪽에 의하면 출생일이 1881년 4월 9일로 되어 있다.

5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적부.

60) Oliver R. Avison, 앞의 책, 72-73쪽. 여기에서 장로교 남자학교는 배재학당을 가리킨다. 정구충, 앞의 책에 의하면 홍준은 언더우드에게 한글을 가르쳤다고 한다.

6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적부.

아했는데,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한국에서는 교인들에게 음주를 금하는 교칙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술과 관련하여 정구충은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어느 날 어느 회합 끝에 교장인 예비슨 박사는 어느 목사로부터 ‘당신 병원은 신자의 진료를 위한 것도 되고 병든 불쌍한 사람의 고통도 덜어 주는 것인데 이곳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선 교의식을 갖고 일하여야 함에도 누구누구는 그 병원에서 중추인물인데도 교인의 행동에서 벗어나 매일 음주를 일삼고 있으니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충고를 받고 예비슨 교장은 ‘그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환자를 취급도 잘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생활에는 교장도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예비슨은 홍석후를 미국에서 연수시키기로 결정하고, 1921년 그를 미국으로 보냈다. 홍석후는 우선 미네소타의 안과·이비인후과 전문의인 매카넬 박사의 병원에서 한달간 머물렀는데, 매카넬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년간 홍석후의 일에 많은 뒷바라지를 해준 적이 있었다. 홍석후는 그후 캔사스시 치과대학의 해부학교수였던 마이어스 밑에서 두경부해부학과정을 이수하고 뉴욕의과대학원에서 전공연구를 계속했는데, 그는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이며 숨씨 좋은 의사라는 평을 받았다. 알찬 2년간의 연수를 끝낸 홍석후는 귀임하여 주로 이비인후과를 담당하였다.

홍석후는 1회 졸업생 중 가장 오래 학교에 남아 후학 양성을 위해 매진하였다. 세브란스 동창회가 언제 결성되었는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는 초대 동창회장으로서 동창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동창회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히고 후배들도 많아지자 홍석후는 1929년 3월 20일 동창회 총회에서 동창회 회장을 사임하였다. 2대 동창회 회장은 이용설이 맡게 되었다. 당시 동창회에서는 ‘본(동창)회 창설 이래 위대한 공훈이 있는 전 회장 홍석후씨를 일생토록 본 회의 명예회장으로 추천키로 정기집씨의 동의와 김윤식씨의 재청이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⁶²⁾ 그는 동창회장 재임 중 동창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동창회 이외에도 당시 교직원과 학생, 직원들로 이루어진 교우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여, 세브란스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동창회장을 사임하고 1929년 6월 1일에는 모교의 학감으로 취임하였다. 당시 교우회보에는 ‘의학에 대한 씨의 풍요한 지식은 새삼 말할 것도 없거니와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인 선생을 학감으로 맞게 된 일은 학교를 위해서나 학생을 위해서나 기뻐할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⁶³⁾

1931년에는 의학전문학교와 의사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일본 문부성의 의학교 심사위원회에서 조사단이 파견되었는데, 학교 교수 자격에 여러 조건이 걸렸다. 사실 홍석후는 의학박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한편 예비슨은 홍석후에게 봉급도 최상의 대우를 해주었으나 의사로서의 생활에는 부족했다. 이에 홍석후는 1931년 2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4월부터 다년간 중임되었던 안과 및 이비인후과장 겸 교두의 직을 사임하고 학교 강의만 담당하겠다고 청원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병원을 개설하여 야간에는 그곳에서 진료를 하였다. 그러나 홍석후는 1931년 9월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강사직까지 사임하였다. 종로에 개원한 진료소에서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환자만을 취급하였으며, 9년동안 많은 환자들에게 호의를 받았다. 그는 1940년 11월 17일 사망하였는데, 임종전에 직접 지은 한시(漢詩)를 제자 정기섭에게 보이면서 마음 속의 회포를 털어 놓았다고 한다. 그 한시의 내용은 자기가 부친보다 먼저 세상을 떠남을 못내 불효하게 생각하면서 한탄하는 것

62) 『세브란스교우회보』 11호, 1929년, 82쪽.

63) 『세브란스교우회보』 12호, 1929년, 67쪽.

이었다.

홍석후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큰 아들 재유는 1930년에 세브란스를 졸업하였고, 6.25 동란 때 군의관으로 활동하다가 전역하고 충북 제천읍에서 개업하였다. 둘째 아들 은유도 1931년에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안양에서 개업하였다.

홍종은(洪鍾殷)

홍종은은 황해도 장연군(長淵郡)⁶⁴ 출신이란 것 이외에는 그의 가족 배경 등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는 1906년 홍석후와 함께 관립의학교를 3회로 졸업하였으나, 진료나 질병치료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예비슨에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마칠 때까지 남아있겠다고 하면서 세브란스의학교에 편입하였다.⁶⁵ 예비슨은 그가 의학용어집을 준비하는 극히 중요한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그가 김필순과 함께 우리말 의학교과서의 편찬에 힘써 졸업하던 1908년 ‘무씨 산과학’을 번역하여 출판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⁶⁶ 동시에 홍종은은 1908-1909년에 간호원 양성소에서 ‘증상의 관찰’ 및 ‘음식물 투여’ 등의 강의를 하였다.⁶⁷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폐결핵에 걸려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그가 언제 사망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그때는 다음 졸업생으로 그의 자리를 채울 수 있었다”는 예비슨의 회고에 근거하면 대체로 1910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⁶⁸

6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적부.

65) Oliver R. Avison, 앞의 책(상), 73쪽.

66) 홍종은 역: 『무씨 산과학』, 대한 황성 세브란스병원 교육부 출판, 1908.

67) Shields ES: Nurses Training School, 『The Korea Mission Field』 5: 84, 1909.

68) Oliver R. Avison, 앞의 책(상), 74쪽.